

내년도 노인일자리 본격 접수 음식특화상가 입주자 모집

순창군, 12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문화센터 등 방문 신청

순창군이 25일부터 내년도 노인일자리 신청 접수에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순창군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당초 목표치인 3천 개를 훌쩍 뛰어넘는 3,380개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민선 8기 출범인 2022년 1,281개로 시작한 노인일자리가 2024년 2,933개로 급증하며 약 2.3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이웃 간 소통 강화와 안부 확인이라는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참여 지역의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수익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노인공익활동형(공공형) 2,25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980명, 공동체사업단 120명 등 총 3,380명 규모이며, 특히 2025년에는 정리수납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접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읍·면 방문 접수기간 동안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12월 20일자



순창군이 25일부터 내년도 노인일자리 신청 접수에 나섰다.

리 사업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접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읍·면 방문 접수기간 동안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12월 20일자

지 순창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발전에 접목시켜 더욱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내년 4월 준공

임실군의 또 다른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임실 전통시장 일원에 음식특화상가가 들어선다.

군에 따르면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임실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점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현재 임실 전통시장과 공용터미널 인접 지역인 임실을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가 한창 건립되고 있다.

음식특화상가는 부지면적 1,086㎡에 연면적 797.26㎡ 단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에는 음식특화상가를 비롯하여, 공중화장실, 옥상 공용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군은 음식특화상가를 통해 임실시장 내 먹거리 특화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성수산, 사선대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 번쯤 들르는 전통시장인 만큼, 이들 관광객들이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 임대모집과 함께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 건립 공사도 순항하고 있다.

현재 모집 대상은 총 3개 점포로, 간편먹거리 1개, 카페 1개, 음식점 1개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1년 이상 되어 있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임실군 거주자,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대하고 있으며, 상가 내 전기·수도 설비는 군에서 설치한다.

모든 입주 상인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대해 가입금의 70%(최대 14만원)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창업은 저렴한 창업비용과 안정적인 상권을 기반으로 창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 민 군수는 “음식특화상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상권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동충동 사랑의 이불 전달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소통 증진을 위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통 행진은 동장이 매일 가정을 방문해 복지 상담, 생활 불편 해소, 건강관리 지원 등 전방위적인 주민 케어를 제공하며 행정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동충동은 2024년 상·하반기에 걸쳐 768가구를 방문해 총 1,95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 이불을 지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한편 김차남 동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주민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환영의 날 행사 성료

임실군이 지난 22일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 환영의 날 행사를 임실군민회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심 민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 각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 내 소상공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로 선정된 관내 모범 소상공인에게 군수 표창과 군의회 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경찰서장 표창, 소상공인연합회 감사패 등을 수여해 소상공인 노고를 격려했다.

심 민 군수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 여러분이 묵묵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임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인공지능 특강

28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초청

순창군립도서관은 오는 28일 AI(인공지능)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진행하며, 사람들의 일상과 일에 급격히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 우리와 함께할 새로운 지능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2년 오픈 AI의 등장 이후 2023년,

이른바 ‘AI 쇼크’가 일어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용어와 개념들이 많아, 일반 시민은 물론 청소년들도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서관은 박태웅 의장을 초청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태웅 의장은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KTH 부사장, 엘파스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에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5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IT 현자’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저서 ‘AI 강자’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을 쉽고 친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번 AI 특강은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석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 안내

순창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로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 기기 사용이 늘 어남에 따라 화재 위험 또한 고조되는 시기로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 시 큰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공간인 만큼 각별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의 주요 요인은 △노후화된 전기배선 △점포별 과다

한 전기기구 사용 △주방 조리기구(가스렌지 주변 벽, 환기구 후드 등) 기를 찌꺼기 축적 △주방의 부주의한 식용유 또는 가스 사용 △겨울철 난방기구 등 화기 취급 부주의 등이 있다.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전기 배선의 정기점검과 교체 △각 점포별 정적전류가 초과 방지 △안전이 인증된 겨울철 난방시설의 구입과 안전한 사용이 효과적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열려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명자)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월랜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과 회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리더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또 회원 상호 간 친밀한 소통을 통한 여성단체 협의회 강화 발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소통·공감’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순창군수의 ‘선진 리더십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라는 주제 특강은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여성의 능력을 일깨우는 소통의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가자



들이 지역사회에서 순창 여성리더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협, 청년농업인 현장견학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임직원과 우수 청년농업인 4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 농협 중앙본부, 농업박물관, 청와대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견학에서는 농협 중앙본부를 방문해 우수 청년농업인의 조직화 및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이념 및 이해 교육을 수강했으며,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인력증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은 “청년농



업인들은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등 성장을 지속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